

짓다만 대구불교회관 흉물전략

마하야나 재정난, 철골만 세운채 8년째 공사못해

“동화사·사원주지련 합심 공사재개를”

대구지역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불교회관 건립 공사가 철골 구조물만 세운 채(30% 정도)의 공진 8년째 방치, 흉물로 전략해 지역불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동구 신창4동에 건립중인 대구불교회관은 지난 83년 불교회관건립 추진위원회(회장 백옥기)가 구성된 이래 추진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어 오다, 88년 대구사원주지련연합회에서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을 설립, 기금마련 및 토지매입에 적극 나서 93년 6월 대구불교회관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대구불교회관 건립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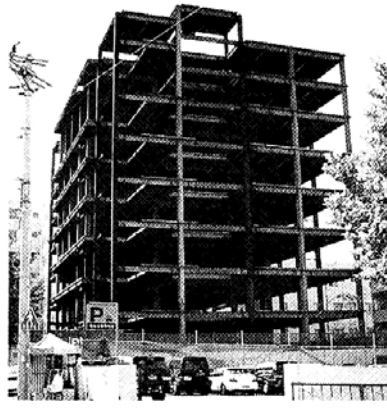
그러나 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93년 12월 공사가 중단, 별경계 녹슨 철골 구조물만을 남겨둔 채 불교회관 건립문제가 8년여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세 보금자리를 얻어 지역포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꿈에 부풀어 있던 대구지역 신행단체들은 불교회관 건립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

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대구불교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동화사와 대구사원주지련연합회는 매년 신년하례 및 교계 중요발표회에서는 연례행사처럼 불교회관 건립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들 두 교계단체가 서로 협력하면 쉽게 성사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구불교계 한 관계자는 “팔공산 깃바위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어려워진 불교회관 건립문제가 동화사의 지원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조계종 공찰인 동화사가 조계종단 소속도 아니며 목적 또한 불교회관 건립을 표방하는 마하야나불교문화원 측에 공금을 지원하는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대구불교회관은 단순히 회관을 하나 세우는 의미보다 대구불교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때 더욱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제라도 지역 불교계가 대승적 차원



◇공사자 중단단체 8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구불교회관.

에서 협력해 19년을 끌어온 대구불교회관 건립문제가 하루빨리 일단락되기를 지역불자들은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박원규 기자



급성백혈병으로 1년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해 오던 한 불자 가정 이광용씨(42·사진)가 이식수술

도약주세요

IMF후 거듭된 사업실패에 급성백혈병 1년...수술 막막

비는커녕 생활비 마련도 곤란한 처지에 놓여 앓을 태우고 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이광용씨의 불행은 IMF이후 거듭된 사업 실패에서부터 시작됐다. 수천만원을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보증금 5백만원 월세방에서 살던 이씨는 주방장일을 하던 식당에서 사태까지 제공받으면서 그나마 어려운 살림을 꾸려왔다.

하지만 올 2월 뜻하지 않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지금은 하루 생활마저도 어렵게 됐다. 다행히 자신의 골수를 이식하는 자가동종 이식수술의 길이 열렸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3천여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감당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도움주실 분은 02734-8050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철우 기자

경부고속철 강행 사전공사?

약속어기고 굴삭기등 동원 문화재 시굴조사

부산 경남 노선인 14-1 공구 양산시 동면 법기리와 기장군 칠마면 임거리 일대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경부고속철 공사 강행을 위한 사전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통과반대 시민중교대책위는 14일 현장답사를 마친 후 성명서를 통해 “건교부 정책수용실장 방문시 협의체 구성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굴삭기 등을 동원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대책위는 16일부터 시굴조사 전면 중단, 건교부 장관 공단 책

임자 사퇴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율스님은 “민관협의체 구성 논의단계에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고속철 노선 공사 강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고속철과 건교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부고속철공단 관계자는 “시굴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공단의 의뢰를 받아 경남문화재연구원과 동아대 박물관이 ‘가마터’로 추정되는 그 일대를 조사하는 문화재 시굴조사일 뿐 노선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노선조사위 구성 추석지내고 논의

불교계와 정부, 건설업체가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1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던 북한산 관동도로 대안노선 노선조사위원회 발족이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노선조사위원회 구성 실무를 맡고 있는 불교계와 정부,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16일 만남을 갖고 추석 이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인원 문제를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양측이 좀더 비중 있는 책임자가 서로 만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새롭게 논의키로 했다.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최근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문제가 적근 검토되는 것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강유신 기자



◇수원포교당이 최근 수탁한 서호노인복지회관 전경.

서호노인복지관 수탁

수원포교당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최근 수원시로부터 서호노인복지회관을 수탁했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서호노인복지회관은 연건평 960평의 신축 건물로 물리치료실, 주간노인보호실, 대강당,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내 4,000여명의 노인 복지증

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수원포교당은 상담, 의료지원, 취미여가 활동 지원, 자활증진 사업, 독거노인 재가복지 사업 등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예절 및 종교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 스님은 “수원 불교계가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효행의 도시 수원에 걸맞는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중국소림사 한국분원 내년 선원사내 개원

중국 소림사 한국분원이 강화 선원사내에 개설된다.

강화 선원사는 10일 중국 송산 소림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2003년 3월부터 선원사내에 소림사 분원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소림사 한국 분원은 중국 소림사 스님들이 상주하게 되며 무술 수련장도 함께 개설된다. 강화 선원사와 중국 소림사는 초중고교 정규체육시간에 소림무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등 송산 소림 무술 홍보를 통한 다각적인 포교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식 기자

중학교 교사가 종교편향교육

특정종교색채 책·음악 등 가르쳐

공교육 기관인 중학교 교사가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목포 유달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일방적으로 종교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에게 항의받은 사실을 접수받고 진상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복장군 결백

서명운동 펴기로

포교사단 불일·종교편향대책위원회 위원장 임희웅, 이하 종편위는 “김태복 장군 재판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속 조치로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포교사단 종편위는 9월 28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리는 서울경기포교사단 하반기 연수 때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김태복 장군 후원회 등 불교단체들의 협조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박병영 기자

조계종으로 접수된 바에 따르면 음악교사인 이모씨는 △특정 종교음악을 부르거나 △종교적 색채가 강한 책의 독후감을 쓰게 하는 등의 종교 편향적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종교편향위원회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수험능력시험(11월 6일)을 앞둔 수험생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수험생의 핸드폰에 부처님 말씀과 격려의 문구를 하루 3번씩 전

험생에게 위안과 힘이 되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드는 동참비는 3만원이다. 불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주) 지도리가 개발한 솔루션으로 오전

수험생 핸드폰에 하루3번 부처님 말씀·격려문구 전송

송해 주는 것. 수험시험 36일전인 10월 1일부터 하루 3번씩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시험전날까지 모두 108번이 된다. 이 108번 동안 수

6시와 정오 오후 6시에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이 행사는 9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문의 02725-9787 이한길 기자

대구햇빛시니어클럽 개관

노인자활후견기관 복지부 지정 받아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의 대구햇빛시니어클럽(관장 지도스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자활 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1일 개관했다.

대구지역 5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햇빛시니어클럽은 기존의 작업장과 함께 10월 1일 경로당을 빌려 제2작업장을 개소, 노인들의 손맛을 활용한 햇빛촌 떡집사

업, 국죽 밀반찬 등의 생산품을 일일 장터를 통해 판매하는 등 소득창출형 자활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햇빛시니어클럽 신장호 간사는 “자활사업 뿐만 아니라 동화 구연, 문화해설사, 사물놀이 교양강좌 강사 양성 등의 문화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박원규 기자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회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절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회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회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회면전생 특강 내용

- (1) 회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天導)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歌)나 영의령(靈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2) 전생되행 회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소개하는 기법
- (3) 원귀 제령 회면 제 3자가 회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회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 (4) 회면 파동요법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歌)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은 선생님 약력

-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 동래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세계 아마미포 기공협회 회장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방최면전생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